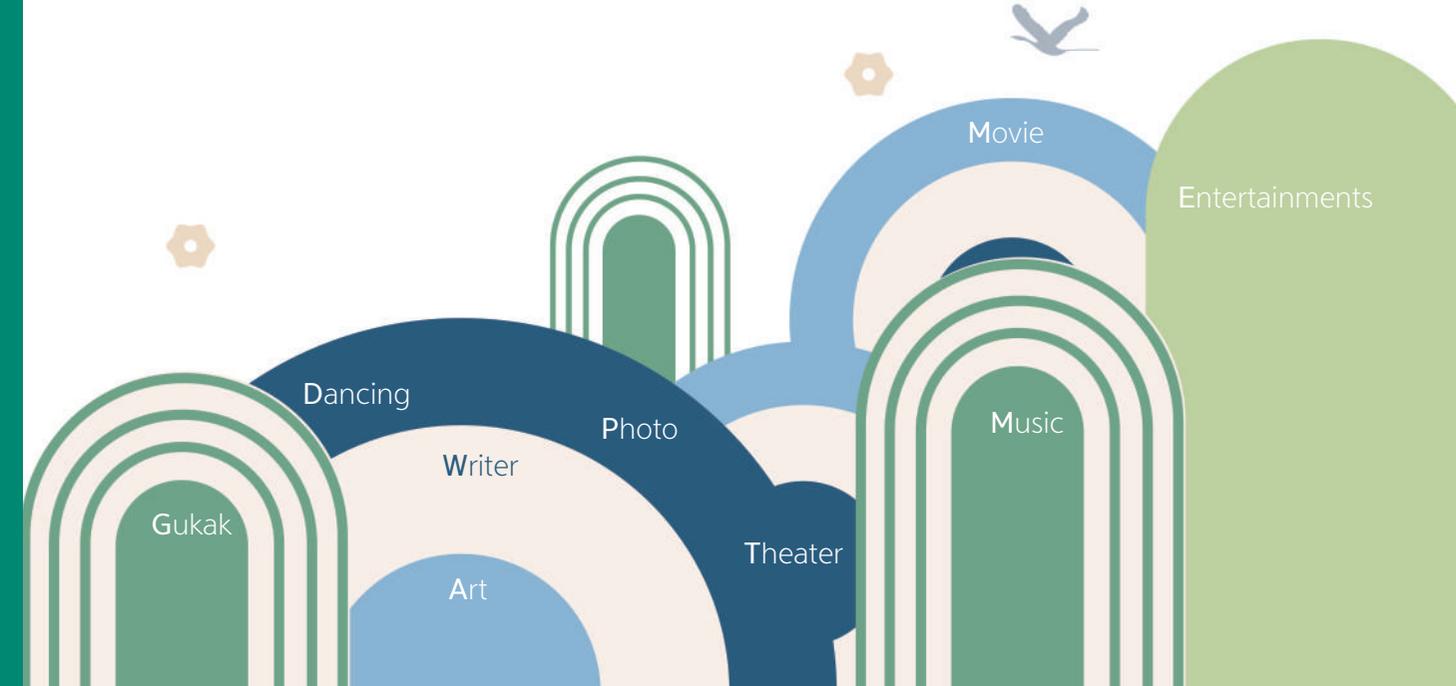




의정부예술

Uijeongbu Arts & Culture 2023



Movie

Entertainments

Dancing

Photo

Music

Writer

Theater

Gukak

Art



Contents

권두칼럼	발간사	4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연혁	6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조직도	7

협회별 이야기	국악협회	10
	무용협회	14
	문인협회	18
	미술협회	22
	사진협회	26
	연극협회	30
	연예협회	34
	영화협회	38
	음악협회	42

의정부예총 이야기	2023 의정부예총 생활예술인 경연대회	48
	연세고든병원과 업무 협약 체결	49
	장암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 협약 체결	49
	의정부예총, '2023 의정부예술제' 개최	50
	2023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	58

전시부문	문인	66
	미술	72
	사진	76





2023 '의정부예술'을 발간하며

예술가는 영혼의 언어로 대중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언어는 사람들의 무의식에 스며들어, 저마다의 가슴에 내재된 본연의 천진함을 의식 위로 끌어올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황막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일상 속 의미를 되찾고 삶의 기쁨을 만끽하곤 하지요.

올 한 해 동안에도 의정부예총 예술인들은 소리와 몸짓과 문장과 시각적 작품들을 통하여 영혼의 언어를 발화하며 대중과 소통해왔습니다. 그러한 예술 작품을 접한 대중들은 저마다의 가슴 밑바닥에 일렁이던 우울을 밀어내고 자기 본연의 원형을 회복하는 신선한 경험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종교학자이자 신화학자인 조셉 캠벨은, “교양, 윤리, 사회화, 문명화 등의 장치에 의해 무수히 상처 입은 영혼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때, 내면의 진정한 자기, 폭발하는 에너지, 무한한 평온과 만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상처 입은 무수한 영혼들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진정한 자신과 만나 무한한 평온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의정부예총 예술인들은 언제까지나 부단히 애쓸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애쓰신 의정부예총 가족과 물심양면으로 의정부 예술인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2023년 12월의 끝 무렵.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장 이미숙

history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조직도

1993.07
 사진작가, 무용, 연극, 미술, 문인, 음악, 국악 등의
 회원 단체가 구성되어
 한국예총으로부터 인준을 받아 한국예총 경기도
 연합회 의정부지회 창립

1993~1996
 초대 류후선 회장

1995.06
 1995년 6월 10일
 의정부1동 190번지 16호 이전 개소

1996~2008
 2대·3대·4대 이흥재 회장

2003.05
 2003년 5월 10일
 의정부2동 477-1호 소재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를 수탁하여
 사무실을 이전 개소

2008~2012
 5대 김용남 회장

2012~2014
 6대 황석자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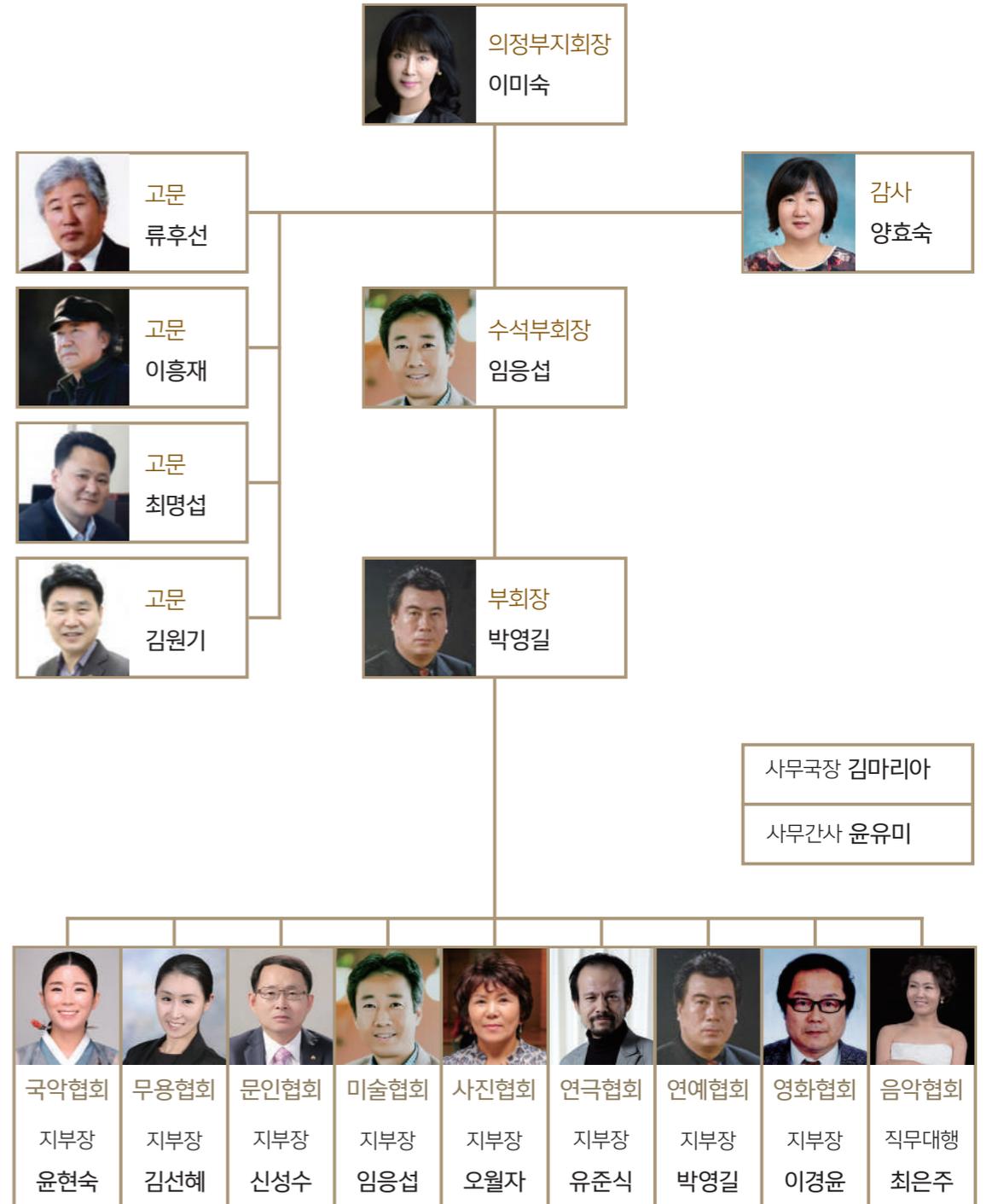
2015~2020
 7대·8대 최명섭 회장

2019.12
 (현) 구성단체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9개 단체 구성 회원수 : 1,120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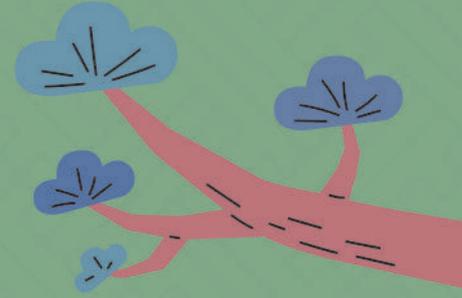
2020.05~2022.07
 9대 김원기 회장

2022.07
 10대 이미숙 회장

(사)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설립목적
 9개 회원협회(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부 문화
 예술의 창달과 교류 및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예술인의 권익 신장을 목표로 함.



협회의 역할 이야기



국악협회

무용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협회

연극협회

연예협회

영화협회

음악협회

국악 협회



(사)한국국악협회
의정부지부장

윤현숙

2023년 국악협회 이야기

11월 4일 시민을 위한 국악의 향연 '가을날의 풍류'

이번 공연에서는 좀 더 대중적인 시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대중가요에 한 획을 그었던 명곡들을 우리나라 악기인 해금으로 재해석하여 연주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또한 국악 그룹 이날치가 불러 유명해진 '범 내려온다'라는 곡을 우리 어린이국악단이 불러주어 굉장히 친숙한 작품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했다.

그동안 의정부국악협회에서는 경기민요를 많이 선보였으나, 이번 공연에서는 젊은 판소리꾼들의 소리로 심금을 울리는 남도민요의 매력을 한껏 발산했다.

이어서 경기수건춤과 경기민요 그리고 의정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물놀이팀들이 무대를 웅장하게 만들어주었다.



25회 의정부국악협회 정기공연 '한과 흥의 어울림'

이번 공연은 윤현숙 지부장의 작품연구와 부단한 연습을 통해 그간 국악협회에서 볼 수 없었던 귀한 작품을 선보였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젊은 경기민요 소리꾼들이 보여주는 신명나는 '장타령!' 윤현숙 지부장이 함께 참여한 '산타령'은 소리뿐 아니라 진도북춤과, 소고춤의 박진감 넘치는 군무로 인해 관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작품은 2024년 KBS 국악대경연의 축하 무대를 장식한 작품이기도 하다. 의정부 지역을 대표하는 판소리꾼들의 구성진 무대와 꿈꾸는아리랑민요단의 신명나는 '배

치기, 연평도난봉가' 등을 북, 소고, 팽과리로 연주하여 관객의 호응을 받았다.

가야금병창의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로 부르는 '내 고향의 봄'과 의정부국악협회 예술단의 경기민요 공연과 젊은 청년단원들로 구성된 의정부지역 사물놀이팀의 공연까지 다채롭고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많은 의정부시민들이 살판마을극장을 찾아주셨다. 2024년에는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관객에게 보다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한다.



무용 협회



(사)한국무용협회
의정부지부장
김선혜

2022년 무용협회 이야기

(사)대한무용협회 의정부지부는 1992년 한국무용협회로부터 인준을 받아 설립된 단체이다. 본 협회는 조상의 얼을 보존,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창작무용, 창작무용극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작품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국내에 물론 외국 공연에서도 한국의 아름다운 춤사위와 힘찬 위상을 표현하고 있으며 공연뿐 아니라 교육활동, 재능기부활동 등을 통해 무용 인구 저변확대와 무용 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은 무용계의 가장 큰 축제인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대회에 '경기도이미숙무용단'으로서 매년 출전하는 것이다.

올해는 구리 장자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한 제32회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대회에 참가하여 은상을 수상했다. 한편 초·중·고등부·일반부 및 대학부·신인부와 순수무용, 실용무용 등 분야를 아우르는 경연대회인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 역시 개최하였다.

회룡한국무용제는 21년간 순수무용(한국무용, 외국무용) 분야만 실시하여 많은 차세대 순수예술인을 발굴해왔으나 2022년, 실용무용인이 모두 참가할 수 있는 무용경연대회로 거듭났다. 우리나라 무용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예술인과 꿈나무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한층 성장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도약한 것이다.

올해는 총 147팀의 참가로 세대와 분야를 망라하는 선의의 경쟁으로 아름다운 무대를 보여주었다.

또 다른 사업으로는 의정부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예술인과 프로단체가 한 무대를 통해 노래와 음악, 춤으로 소통하는 의정부 가무악축제를 11회째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의정부를 대표하는 가장 큰 축제이자 예술인들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내는 의정부예술제, 회룡문화제 등 타 협회 및 예술단체들과 함께하며 의정부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약 30년간 의정부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무용협회는 김선혜 지부장을 비롯하여 지한영 부지부장 등 약 43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예술인들과 비예술인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2023 제32회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대회 '꿈꾸는 여름산'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대회는 매년 행해지는 무용인들의 가장 큰 축제이자 전국무용제에 참가하기 위한 경기도 예선경연대회이다.

올해는 경기도의 각 시를 대표하는 10팀이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구리 장자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의정부시를 대표하여 출전한 '경기도이미숙무용단'은 창작 작품 '꿈꾸는 여름산'으로 은상을 수상하였다.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젊은 무용수들이 전통과 창작, 계승과 발전,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고뇌와 현대인의 희로애락을 담은 작품을 통해 역동적인 몸짓과 희망적인 미래를 표현하며 창작의 혼을 불태웠다.



2023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는 초·중·고·대학생과 일반부·신인부까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축제의 장이다.

무용 인재 발굴 및 예술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정부문화원 문예극장에서 대회를 실시하였다.

2022년 신설된 실용무용 부문과 순수예술 부문이 함께 어우러져 뜨거운 경쟁을 선보였다.

순수무용뿐만 아니라 실용무용도 아우르는 회룡한국무용제를 통하여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의정부를 문화예술의 본고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다방면으로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본 대회는 경연 직후 점수를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2023년 행복로 거리공연

2016년부터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활성화 및 행복로 테마거리 조성,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회룡 거리공연” 상설화로서 행복로 거리공연이 시행되고 있다.

의정부시의 이미지 제고와 볼거리 및 추억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명소화에 힘쓰는 것이다. 총 4회로 진행되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첫 번째와 세 번째 무대는 화려하고 우아한 궁중정재로 나라의 평안과 만민의 평화를 기원하는 '태평지화무'를 선보였다. 두 번째와 네 번째는 화풍별곡, 진주교방굿거리춤, 쟁강춤, 버꾸춤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춤과 민속춤으로 구성되어 선보였다. 본 공연은 누구나 의정부시의 지역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서 의정부시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2023 의정부예술제 개막식 축하공연 및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역문화예술의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큰 축제인 의정부예술제에 올해는 음악협회, 문인협회와 함께 콜라보 작품으로 개막식 무대를 장식하였다.

의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문화단체의 가장 큰 축제라는 데에 의미를 두어 단독공연이 아닌 협회 간의 화합으로 만든 작품을 선보인 것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지치고 힘들었던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축되었던 예술인들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 흥겨운 노랫가락과 아름다운 춤사위로 흥겨운 무대를 마련하였다.

마음을 울리는 서정적인 시낭송과 가을밤을 수놓은 아름다운 몸짓을 선사하며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제11회 의정부 가무악축제 '2023 어울림 한마당'

예술을 전공한 전문예술인들과 노래와 음악과 무용을 사랑하는 비예술인이 함께 무대에 설 기회를 마련하였다. 다채롭고 다양한 무대를 통하여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제공한 것이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가무악축제는 '2023 어울림 한마당'이란 타이틀 아래 '경기도이미숙무용단'의 아름다운 한국의미를 상징하는 부채춤을 시작으로 의정부를 이끌어갈 차세대 어린이민요단인 '꿈꾸는아리랑어린이민요단'의 '아리랑연곡', '우리벚노래' 가야금과 민요가 어우러진 '가야금병창', 의

정부시 제22호 문화재인 '경기수건춤', 아리랑국악원의 흥보가 중 '화초장 대목', 타악과 춤이 함께 어우러지는 '버꾸춤',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순수 생활 동아리인 '스파크의 북 연주'로 대미를 장식하며 무대의 막을 내렸다.

타이틀 그대로 공연자, 관객 모두가 신명나게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무대를 마련하는 게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되는 무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활동을 통한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매년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경기도민속예술축제에 의정부시 대표로 출전하고 있는 민속예술단체와 제22회 의정부시 향토문화제 의정부북양동버들개농요보존회는 이미숙 의정부예총회장의 안무, 연출, 교육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1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각 자치단체가 주관, 주최하여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2023년 의정부시

는 11월 1일(수) 의정부문화원 야외무대에서 자체적으로 경연을 실시하였다.

이미숙 회장과 박문용 회원(교육이사), 이소희 회원(교육이사)의 지도 아래 약 2개월간 연습하여 경연대회에 출전하였다. 야외 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만큼 의정부시민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되었다.

2023년 생활예술인경연대회 '제2회 의정부 Dance Festival'

의정부시의 숨은 예술인을 찾아라! 본 대회는 순수예술(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과 대중예술(댄스스포츠, 뽀리댄스, 스트릿댄스, 방송댄스 등) 장르 구분 없이 함께 즐기며 경연하는 소통의 장이다. 취미가 활력이 되고 그로 인해 일상이 행복해지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누구나 참여 가능한 Dance Festival! 이는 전공예술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무대에서 말 그대로 생활예술인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제공해주는 무대이다. 2022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두 번째 대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본 Dance Festival을 향후 생활무용계와 순수무용계가 더불어 발전하고 의정부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확장해내는 것이 목표이다.



- 3. 1. 104주년 3.1절 기념공연(신한대학교 뽀엘관)
- 3. 18. 우리민속 한마당(국립민속박물관)
- 4. 8. 의정부 호원 뽀꽃축제(의정부시 호원동 뽀꽃길)
- 4. 22. 서울 뮤직 앤 뽀스페스티벌(서울어린이대공원 숲속의 무대)
- 4. 29. 남상일의 100분 SHOW(인천동구체육문화센터)
- 5. 12. 2023의정부시립무용단 찾아가는공연(의정부시 곰두리네집)
- 5. 12. 2023의정부시립무용단 찾아가는공연(의정부시 효누리노인복지센터)
- 5. 27. 정법사 뽀축음악회 『김종엽의 신명, 그리고 울림』(정법사 야외무대)
- 6. 3.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2023 거리예술공연』(의정부시 행복로)
- 6. 10.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2023 거리예술공연』(의정부시 행복로)
- 6. 16. 의정부시립무용단 제41회 정기공연 '2023 두드리GO!'(의정부 야외상설무대)
- 6. 18. 2023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개막퍼레이드(의정부시 민락동일대)
- 6. 18. 양주시민과 함께하는 국악한마당(양주시 덕계공원 야외무대)
- 6. 19. 2023의정부시립무용단 찾아가는공연(의정부시 소풍재활주간보호센터)
- 6. 19. 2023의정부시립무용단 찾아가는공연(의정부시 더조은주간보호센터)
- 6. 24. 2023대한민국국악제(남산국악당 야외특설무대)
- 6. 25. 제32회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대회 '꿈꾸는어름산'(구리시 장자못공원 야외무대)
- 7. 6. 2023의정부시립무용단 찾아가는공연(의정부시 가족사랑주간보호센터)
- 7. 6. 2023의정부시립무용단 찾아가는공연(의정부공업고등학교)
- 7. 14. 2023의정부시립무용단 찾아가는공연(의정부시 회룡초등학교)
- 7. 14. 2023의정부시립무용단 찾아가는공연(의정부시 녹양초등학교)

- 7. 22. 2023의정부시립무용단 찾아가는공연(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 8. 15.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하공연(신한대학교 뽀엘관 세미나실)
- 9. 1. 2023전남수목비엔날레 개막식(목포문화예술회관 야외특설무대)
- 9. 10. 아산 제회국제민족무용축제(충남아산시 신성호 야외음악당)
- 9. 16. 2023의정부예술제(의정부시 야외상설무대)
- 9. 18. 2023의정부시립무용단 찾아가는공연(의정부용현초등학교)
- 10. 6. 제38회 회룡문화제 개막식 축하공연(의정부회룡사입구 사거리 야외특설무대)
- 10. 9. 2023정법사 풍류한마당(서울정법사 대웅전 앞마당)
- 10. 14. 2023의정부시 관광홍보기획공연(의정부시 행복로)
- 10. 15. 2023의정부시 관광홍보기획공연(의정부시 행복로)
- 11. 1. 2023경기도민속놀이축제 출전 '의정부유현리기우제'(의정부문화원)
- 11. 4. 2023신승태콘서트 '그대라는 꽃'(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 11. 11. 제23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의정부문화원 문예극장)
- 11. 18. 2023 생활예술인경연대회 '제2회 의정부 Dance Festival'(예술공간 휴서사)
- 11. 28. 천원의 뽀축음악회 '무향-춤의 울림'(함양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12. 5. 온 국민 건강기원 신명나는 국악쇼! 만수무강(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12. 14. 의정부시립무용단 제42회 정기공연 창작무용음악극 '전작'(의정부예술의전당대극장)

이외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축소 여파로 많은 활동에 제약 받고 공연활동에 지장이 있었으나 회원들의 식지 않는 열정과 노력으로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로서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다.

문인 협회



(사)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장
신성수

의정부시 문학 발전에 기여한 한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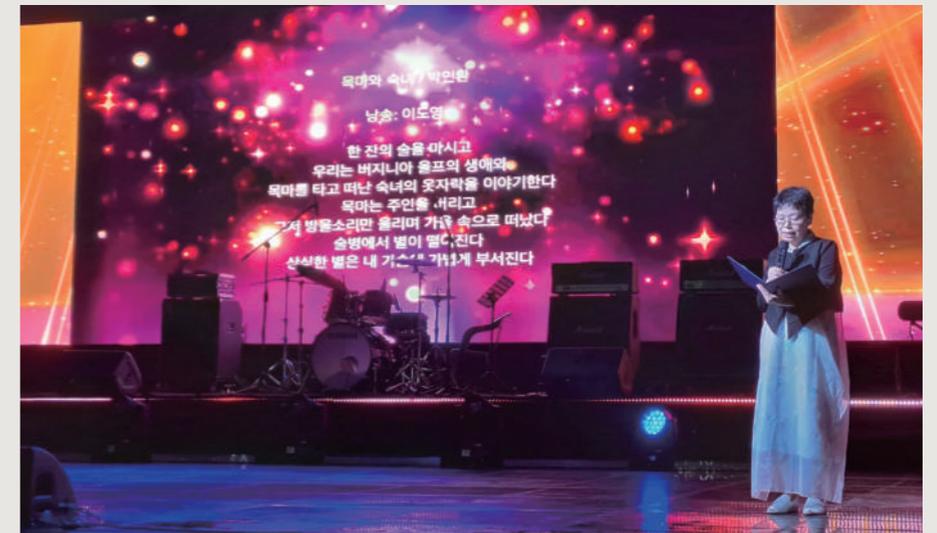
2023년 의정부문인협회는 매월 월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월례회 자리에서 시인 류 일화, 수필가 박정숙, 시인 이지향, 수필가 이윤미 회원이 '나의 삶 나의 문학'을 주제 발표하며 '삶과 문학'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어 회원들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편 의정부문인협회는 활발한 창작활동 결과 많은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시인 이정희 부지부장이 '미안한 마음', 신성수 지부장이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를 각각 출판하였습니다. 소설가 이숙경 회원은 2023 경기문화재단 창작지원금을 받았고 소중한 결실인 장편소설 '프로레타리아 여인의 밤'을 출판하였으며 수필가 구서휘 회원이 수필집 '은근히 흐뭇했다'를 발간하였으며 한국문인협회 출판문학상을 받는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2023 어울림시화전

2023 의정부예술제에서 '어울림 시화전', '책갈피 만들기', 무용협회와 협연한 '시 낭송(시인 김선용, 시인 이도영)으로 의정부 시민들이 문학과 친숙해지는 귀한 시간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정희 부지부장은 초등학교 작품을 모두 교정 보았고 김기수 사무국장은 회원들 작품을 액자로 제작하는데 성심을 다해 봉사하였습니다. 행사 당일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전시하고 철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정부예술제 이도영 시인 시낭송



의정부예술제 김선용 시인 시낭송

예총 주최의 2023 생활예술인경연대회 중 제2회 의정부 시낭송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과 시민들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시를 낭송하여 문학을 내면으로 승화시키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김기수 사무국장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많은 참가를 위해 성심을 다해 봉사하였고 작품 한 편 한 편을 자세하게 소개하여 관객들의 이해를 도와 행사를 빛나게 하였습니다. 예술공간 휴서사에서 귀한 장소를 제공하고 작품마다 배경음악을 준비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 낭송대회가 되었습니다.



의정부예술제_책갈피 만들기



제2회 의정부 시낭송대회 시상식

10월 13일부터 한 달간 전국의 중학생부터 대학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25회 의정부전국문학공모전은 올해 처음으로 대상 상금이 400만원으로 증액되어 수준 높은 작품들이 응모하여 빛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12월 9일 제32집 의정부문학을 출판하였는데 전임 김문희 지부장의 노력으로 중국 단동문학회 특집 기사를 실어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 사는 동포들의 우리 말과 문학 사랑의 참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2024년에도 의정부시 문학 발전에 기여하는 한 해가 되도록 문인협회는 전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문학 제32집 출판기념회



제25회 의정부전국문학공모전

미술 협회



(사)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장
임응섭

2023년 (사)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 소회

경기아트페스타 전시는 경기도미술협회에서 경기도 32개 지부에 참여를 의뢰한 전시로서 작가들이 전시비를 부담하여 작품을 출품하였다.



구애경_본질에대한것

강연옥_심연



김선영_우연속 필연



임응섭_기다림



마해용_삼각산의 만설



문홍수_일일신



오선영_동행



이동술_추억



김영미_장미



안정희_노신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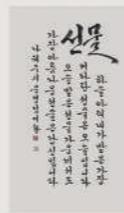
허존_테고적 향기



김은미_바람소리



김마식_屯澤流施(문택류시)



임미환_나태주의 선물



조영애_기쁜마음으로

60인의 꿈

의정부시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하여 의정부 문화재단 주최, (사)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에서 주관하여 의정부 지역작가 60인을 선정하였다. 의정부시의 옛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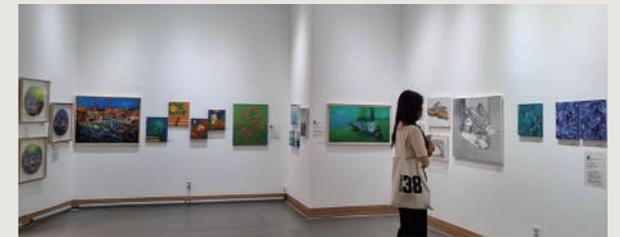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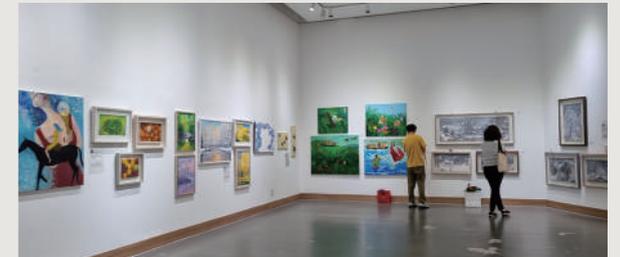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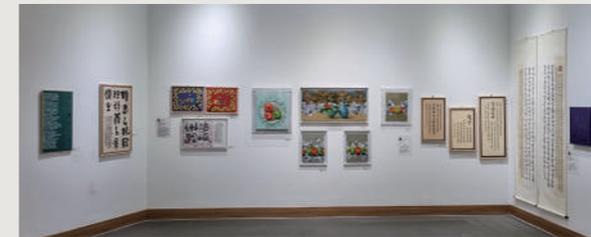
60장을 통하여 옛 모습을 추억하며 의정부시의 변화 과정과 작가들의 미술 세계를 들여다보며 일상의 삶이 행복한 문화도시로서의 의정부시를 그려보았다.



미술에 진심 3030전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돼 첫해 사업을 진행한 의정부문화도시지원센터는 시민들이 '정책'을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닌 '우리 삶과 일상에 맞닿아 있는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하기 위해 '문화도시 정책 페스타'를 기획했다. 2023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를 장식한 신선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미술에 진심 3030'이다. 인간이 그리는 무늬는 자연과 사람 사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이것이 문화와 예술로 풀어지고 모이는 곳

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문화로 연결되어 있어서 먼 길을 가다가 길 위에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 또한 밥 한 그릇 먹는 사람들과의 오묘한 인연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터야 하는 문화가 있는 것처럼 예술 또한 특정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일상에서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 이에 지역작가 30명의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작가 홍보와 지역문화예술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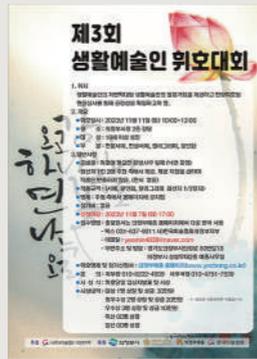
2023 의정부 현대미술초대전

현대미술초대전은 의정부미술협회 회원들만의 전시로 예산에 준하여 최대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참여작가는 106명이었고 9개 분야의 2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이 전시는 지역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의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의정부시가 미래 확장성이 매우 큰 지역임을 확인하게 하였다. 앞으로도 의정부미술협회는 예술가들이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시민들은 풍요로운 예술의 향유를 통해 각자의 행복을 영유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제3회 생활예술인 휘호대회

제3회를 맞이한 생활예술인 휘호대회는 전통문화예술인 서예·문인화·캘리그라피를 전승하고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생활인들이 본인의 기량을 확인하고 도약을 꿈꿀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의정부미술협회는 현장 휘호와 공개심사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대회를 진행해 왔다.



철원지역 워크샵

의정부미술협회는 지난 5월 21일, 회원들과의 친목 도모와 역량 강화를 위해 철원지역 워크샵을 다녀왔다.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걷고 고석정 꽃밭에서 자유시간을



누리며 산사원에도 들렀다. 작가들은 스케치와 더불어 작품구상을 하며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기도 하였다.



2023 제32회 전국회룡미술대전

전국회룡미술대전은 32년 동안 미술의 다양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며 한국 미술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여 명실상부한 미술인들을 배출하는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회화예술을 비롯하여 민족의 정서와 미학을 담고 있는 서예·문인화 등은 오랜 세월 우리 삶과 함께한 이유로 일상 속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본 대회는 작가들의 새로운 실험 개발과 미래지향적 토대가 되리라 생각한다.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사의(寫意)적 표현이 내재된 작품이 많이 배출되길 희망하며 본 대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사진 협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장
오월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이야기

“촛점이 맞지 않은 한 장의 사진은 실수이고 촛점이 맞지 않은 10장의 사진은 실험이며 촛점이 맞지 않은 100장의 사진은 스타일이다.” - Alfred Stieglitz

미국 근대사진의 아버지라 불리는 알프레드 스티그리츠가 말했듯이 우리 사진의 표현방식이 사진만이 가질 수 있는 독자적인 미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정통사진인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를 추구하던 단체전에서 회화적인 표현들을 가미한 작품들이 선보인 제28회 협회 회원전에서는 개성을 찾기 어려웠던 단체전의 취약했던 부분들을 극복한 결과물들이 나와 작가들의 부단한 노력에 지부장으로서 크게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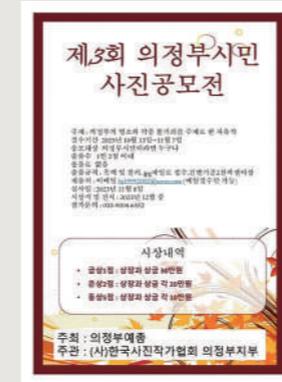
회원전과 함께 진행해온 제2회 통영지부 회원교류전 또한 지속될 수 있었던 점이 감사한 일이다. 자매결연 맺은 통영지부와 2022년에 제1회 합동전시회를 가졌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해를 거듭하여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 아끼지 않은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예총에 다시 한번 이 지면을 통해 감사 인사 드린다.



보컬선거가 있어 2023년은 여느 다른 해보다 숨가쁘게 진행해온 사업들이다.

당선증 교부가 있자마자 사무국에 접수 된 회룡공모전 응모작들을 위한 심사일정 등을 결정하고 심사위원들을 선정하고, 협회 본부에 감독관 요청하며 목동에 있는 예술인센터에 찾아가서 협조요청하였고, 심사를 위한 장소대관도 급히 의정부시청 대강당으로 협조를 받

는 등 하여 올해 31회째인 의정부를 대표하는 사진공모전이라는 명성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206점의 작품들이 접수되었으며, 영광의 금상은 촬영하기 쉽지 않은 장소의 작업현장을 촬영한 작품이 당선되었다. 사진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소재로 쉽게 파악 할 수 있는데, 이번 금상 작품은 소재가 ‘촬영장소(조선소)’인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의정부예술 주관 행사였던 2023의정부예술제에서 사진작가협회는 사람과 자연이라는 주제로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참여전을 펼치고 부대행사로 시민들에게 즉석 사진을 촬영후 프린트하여 무료나눔을 진행했다. 의정부예술제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각 협회별 체험 부스들의 체험을 하면서 우리 사진협회는 오늘을 기억하는 사진 한 장 남겨가는 소중한 추억을 드렸다. 생활예술인경연대회의 일환으로 사진작가협회는 시민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3회째인데, 올해는 작가들의 참여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많아 시민사진공모전의 성격에 부합한 듯 하여 긍정의 평가를 해 본다. 여러 사정상 별도의 시상식은 없었지만 1주일간 의정부

시청 시민갤러리에 응모작 전부를 전시하였는데, 오가는 의정부시민들이 관람하여 2024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해 본다. 봄에는 회원들과 함께 단체 출사도 있었으며, 지역에서 요청하는 촬영봉사에 작가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올해는 회원중에 개인전, 그룹전 등을 개최하는 회원들이 많았으며, 문화상 수상 등 회원 개개인이 약진하는 해였다. 협회가 회원들의 창작활동에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2024년을 맞이하는 지부장의 고민은 늘어난다.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협회 사무국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남기며, 함께 한 배를 타고 기꺼이 항해를 해 준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 전한다.



연극 협회



(사)한국연극협회
의정부지부장

유준식

2023년 연극협회 이야기

1995년 의정부의 프로 연극인들이 모여 설립한 전문 연극인·단체 연대체이다. 그간 '통일예술제' 총연출, '원코리아페스티벌' 개최, '별빛여울축제' 공연 등 축제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매년 '대한민국연극제'에 출품하여 2008년, 2019년 경기도대회 대상과 2019년 본선(전국) 금상을 수상하였고, 2023년 경기도 은상을 수상하여 의정부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고, '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 문화예술일제잔재청산 마당'을 개최하는 등 의정부시민들의 문화 저력을 한데 모으기도 하였다. 또한 어려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호도하는 연극 '효 공연'을 매년 씬 없이 펼쳐와 연극의 진정한 가치를 넓히며 활동하고 있다.

의정부연극협회는 극예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치유를 위해, 전문 연극인 양성을 위해, 예술인들의 교류를 위해, 매년 끊임없이 창작과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더불어 의정부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가치를 드높이고 의정부시가 더 나은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유준식 지부장과 박정근 부지부장, 최병화·무세중 고문, 전영옥 이사, 문인옥 감사, 이왕일 사무국장 등을 명석으로 삼아, 극단 '허리', 극단 '한네', '대동'전위극회 등의 연극단체 소속 100여 명의 회원이 극예술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



'예술공간휴서사' 개관 페스티벌

1990년 의정부 휴서사 소극장으로 시작한 소극장문화운동이 경기북부 지역공연문화 저변 확대에 마중물이 되었다. 2005년 대학로에 허리카페테아뜨르와 연습실을 만들어 극예술 활동을 이어나갔다. 2014년 도봉구에 번두리지역문화운동을 이어가고자 창동극장을 개관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다. 2023년 의정부 예술의 풀뿌리를 되살리기 위해서 민간공연장(소극장) 문화 운동을 다시 펼치기 위해서 9월 '예술공간휴서사'를 개관하였다. 전문예술공연과 생활예술공연의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들로 시민들의 여가와 힐링, 삶 속의 예술화를 선물한다.



효 기획공연 '으랏차차 세 자매'

의정부연극협회 소속 '극단 한네'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쉽지 않은 어르신이 계신 시설을 직접 찾아뵙고 즐거운 공연을 올렸다. '으랏차차 세 자매'는 세 자매 할머니들의 집에 매일 찾아오는 철수와 매일 무서운 도구를 들고 나타나는 철수의 아내 영숙의 숨바꼭질과 함께 펼쳐지는 즐거운 이야기이다.



의정부 민간공연장 예술공간 휴서사 개관

2023.9.8.금 저녁 7시

개관 기념 페스티벌

9.13-9.15 의정부 예술을 펼친다
9.13.후 19:30 / 연희 (보, 7억, 그리고 나리) / 백정현, 예술감독, 9억
9.14.후 19:30 / 무용 (춤·잇-다) / 이은숙, 안무·김종남주최
9.15.후 19:30 / 연극 (대한민국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회) / 유준식

9.23-10.28 의정부에서 예술 하는
9.23.후 19:00 / 불확실한 음악 (문고림, 비틀즈를 그리고) / 손희현주최, 창작9억
9.24.후 19:00 / 불확실한 음악 (남개천 시간, TEMPO RIMASTO) / 반민준주최, 창작9억
9.26.후 20:00 / 불확실한 연희 (비극시대) / 연희집단주최, 창작9억

11.8-11.19 의정부에서 예술 살고 있는
11.7-19 / (의정부 생활예술인 공연대회) / 예술공간 휴서사, 의정부예술

공연정보: 02-312-1111
예술공간 휴서사 경기도 의정부시 둔아로 49안길 28, B1
문의: 02-312-1111

ARTSPACE HUESSOSA opening festival

극단한네
2023 어르신을 위한 효공연

으랏차차 세 자매

최병화 작 / 정 현 연출

5월 3일 (수) 오전 11시 의정부1동성당 노인대학
5월 4일 (목) 오전 10시 30분 흥분 요양원 / 오후 2시 실버빛 주간보호센터
5월 9일 (화) 오후 2시 대한노인회 의정부지부
5월 10일 (수) 오후 4시 우리 소극장
5월 11일 (목) 오후 4시 우리 소극장
5월 12일 (금) 오전 11시 신곡2동성당 노인대학

원코리아 페스티벌

90년도부터 지역문화콘텐츠를 개발해오는 의정부연극협회의 오래되고 가장 현실적인 페스티벌이다. 토론회, 포럼, 총체극, 뮤지컬 등 다양한 소재로 지역문화를 일궈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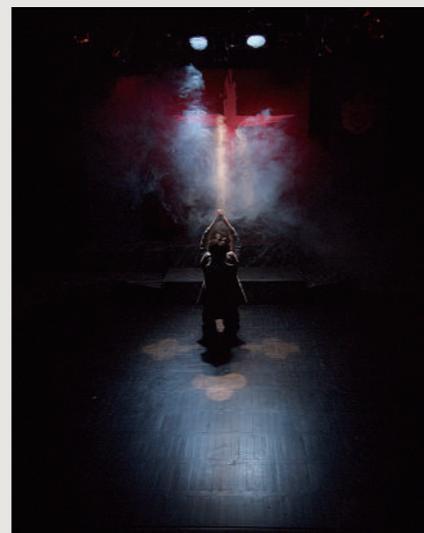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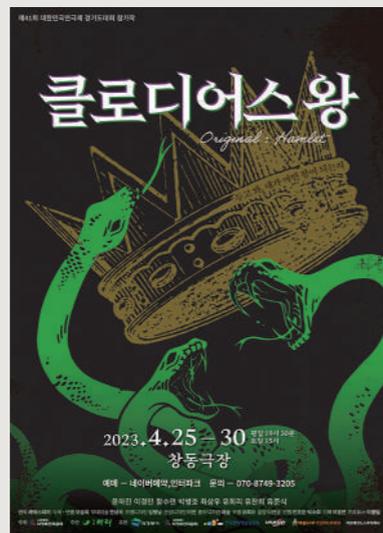
자칫 무겁게 느낄 수도 있는 이 테마를 지역적 분단과 화합, 정치적 분단과 조화, 세대 간의 분단과 상생, 친구와의 소통단절과 우정, 가정의 분열 내지는 가족의 소외

등등, 우리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평화를 이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모든 인간들의 생활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테마로 삼는다.

특히, 올해는 의정부 문화콘텐츠를 개발한 공연 2작품을 감상하고 의정부지역 문화콘텐츠를 창작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시민과 젊은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고민해보는 토크쇼를 가졌다.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 대회 참가작 '클로디어스 왕' 의정부연극협회소속 '극단허리'의 대한민국연극제 참가작, '클로디어스왕'. 경기도 은상 수상!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클로디어스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클로디어스왕'은 정의로운 악행의 늪에 빠진 왕의 딜레마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현대 사회상을 꼬집는다.



뮤지컬 '흥선, 기억하고 존재하다' -〈지역콘텐츠 창작 레퍼토리II〉

협회 소속 극단허리의 〈지역콘텐츠 창작 레퍼토리〉는 의정부의 역사와 문화, 유·무형 문화재 등의 자원을 소재로 삼아 콘텐츠화하는 지역 기반의 대표적인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 두 번째 걸음으로, 지역 기반 창작의 지속 가능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흥선동의 '기억'에 관한 이번 공연은 나의 공간이 마을이 나라가 사라진다면, 분명 그것에 관한 기억을 지키려는 자와 그와 반대로 빠르게 변화하려는 자의 피할 수 없는 충돌에 관한 이야기를 무대에 올린 작품이다.



버라이어티공연 쇼 [관객공감]

도민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으로 도민들의 생활 속 근거지로 들어가 누구나 쉽게 접하고 어울리며 퀄리티 있는 문화 공감을 나눌 기회를 만들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이든 타인으로 인해서든 감정억제를 쌓아놓고 있는 평범한 도민들의 내적 감정을

공연문화예술로 발산시켜 감정찌꺼기가 남지 않게 힐링을 이끌어 내었다. 한바탕 웃고 감동 받고 즐기는 사이에 삶의 즐거움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하며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연예 협회



(사)한국연예협회
의정부지부장
박영길

2023년 연예협회 이야기

제4회 행복가요제 및 의정부축제

협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21일, 의정부시 행복로에서 문화예술 기획을 통한 의정부시민의 행복가요제를 개최하였다. 문화예술의 힘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효과를 기대하며 본 축제를 개최하였다.

시 보조금 300만 원에 협회 예산 일천백만 원 정도를 들여 가요제를 치렀으며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의 즐거움을 배가시키기 위해 각종 경품을 다양하게 준비해 공연을 보는 즐거움과 선물을 받는 기쁨을 동시에 드렸다.

가요제 대상은 권미경 참가자가 받았다.



제6회 시민을 위한 문화 축제

지역 공연 예술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9월 17일, 제6회 시민을 위한 문화축제를 개최하였다. 500여 명 이상의 관객이 축제를 관람했다.

10인조 드림패밀리 밴드 공연 및 16명의 가수 공연, 장구, 난타 공연, 발리댄스 공연, 한 시절을 품이었던 개그맨의 공연 등을 통하여 수준 높은 문화 예술 행사로서

의 면모를 보여줬다.

전통 및 현대 예술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 장르 중 60년대 가요부터 80년대까지 애창되고 있는 음악을 중심으로 축제가 진행됐다. 도심 속 가을바람에 그룹사운드 협연과 함께 가요, 민요, K-POP 공연 등이 이어져 시민들이 옛 추억의 향수에 젖어 들었다.



2023 생활예술인 경연대회 가요제

11월 19일에 열린 2023 생활예술인 경연대회 가요제는 연예협회 주관 가요제이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 연령대 시민들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편안한 가요제로서의 의미를 담아 개최하였다. 가수의 꿈을 키우고자 하는 다수의 출연자들이 열띤 예선을 거쳤다.

본선에 오른 총 17팀 중 올해의 대상은 최우리 씨가 받았다. 금상은 박윤정, 은상은 백지원, 동상은 손소영 씨에게 돌아갔다.



신세대가요제

11월 26일에 치른 제15회 신세대가요제는 만19세~39세까지의 신세대들에게 가수로서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가요제이다. 올해도 많은 예선 참가자가 참여했고, 그중 13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5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은 서울의 달을 부른 원태용 참가자가 차지했다. 금상은 김원용, 은상은 김지혜, 동상은 김다현, 인기상은 멀리 외국에서 온 ROY MILON 참가자가 수상했다.



2023년 정기총회및 송년회

협회에서는 12월 17일에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열어 2023년의 한해를 회고하고 내년에 대한 희망과 목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식사와 공연이 있었으며 협회장(박영길)은 1년 동안 협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부회장들과 사무국장, 각 분과위원장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희망 나눔 일일 찻집

여름이 끝나가는 8월 31일,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의정부지회 회원들이 모여 희망 나눔 일일 찻집을 열었다. 몇 년째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의정부연예협회 회원들을 위한 일일 찻집이었다. 그리하여 세분의 회원에게 정성 가득한 금액을 전달했다.



회원들의 이모저모

협회 회원들이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예술문화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영화 협회



(사)한국영화협회
의정부지부장
이경운

2023년 영화협회 이야기

(사)한국영화인협회 의정부지회 이경운 지부장은 2023년 여름, 창작 단편영화 '새엄마의 눈물'을 제작했다. 본 작품을 '2023 대한민국예술축전 경기도 예선대회' 영화 부문에 출품한 결과 '우수작품상'을 수상하였다.

'2023 의정부예술제' 무대에서 '새엄마의 눈물'을 상영하여 수많은 관객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새엄마의 눈물

장르 : 드라마

제작 : (사)한국영화인협회 의정부지부

등급 : 전연령 관람 가

각본·감독 : 이경운

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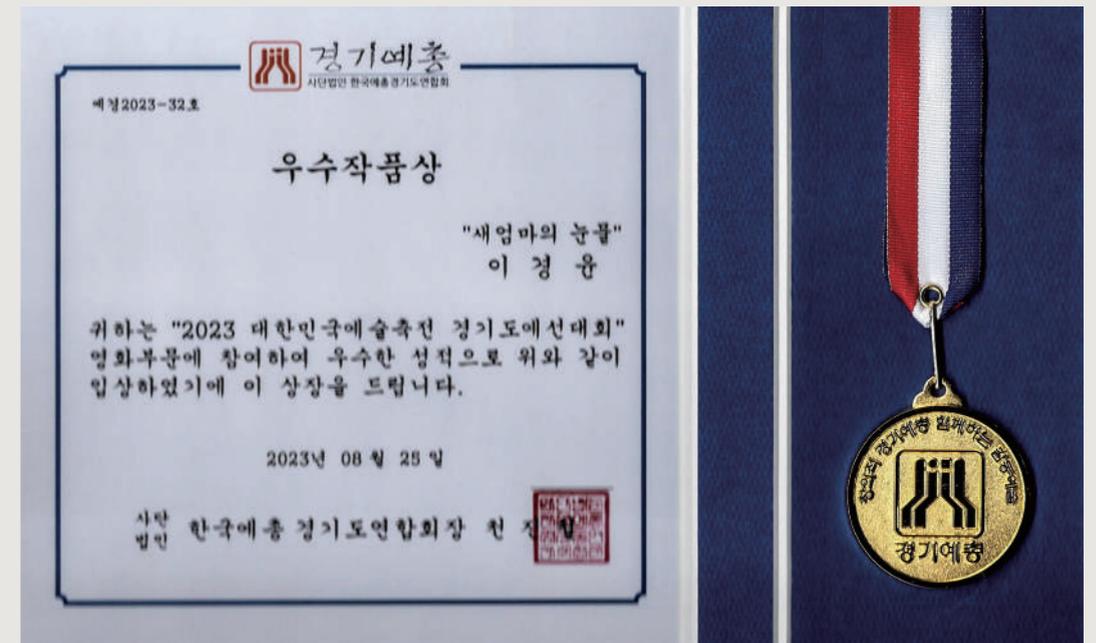
평화로운 어느 산촌마을 계곡에서 동네 아이들이 고기잡이를 한다. 아이들은 자리다툼을 시작한다. 영수와 영식이 형제가 합세하여 순철이를 내동댕이친다. 쓰러진 순철이는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는다.

영수와 영식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 형제는 서로 자기가 순철이를 죽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조사관은 골머리를 앓는다.

10년 전 영수 아버지와 재혼한 영수 엄마는 엄마 없이 자란 영수보다는 본인이 낳은 아이인 영식을 차별해달라고 하소연한다.

영수 새엄마의 고백에 감동한 순철 엄마는 새엄마와 영수, 영식 형제를 포옹하며 두 형제를 훌륭히 키워달라 부탁하며 고소를 취하한다.

아름다운 모성애가 심금을 울리는 순간, 순철이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다.





새엄마의 눈물



음악 협회



(사)한국음악협회
의정부지부장
직무대행
최은주

2023년 음악협회 이모저모

의정부음악협회는 2023년에도 지역 내 음악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경기도 문화의 날 공모사업으로 해마다 진행해오던 '행복배달음악회'를 의정부문화재단과 협력하여 더욱 확대하였으며, 'U브릿지 예술마당'을 통하여 의정부 중심부에 흐르는 하천의 여러 다리 및 주변이 예술적인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정부 음악 문화 발전의 기여도를 높였다.

특히 시민의 날에 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의정부시민합창단 공연을 진행하며 시민들이 음악과 보다 친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함께 멋진 축하 무대를 만들었다.

의정부음악협회는 2024년에도 시민들의 음악 문화 향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3년 의정부음악협회 공연 및 행사>

- 5.20(토) 회원음악회Ⅰ, 음악도서관, 부부가 되었다
- 6.18(토) 의정부 음악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 연주회
- 7.8(토) 회원음악회Ⅱ, 음악도서관, 해설과 함께 하는 Cool콘서트
- 8.26(토), 11.4(토) 경기도 거리로 나온 예술, 회룡역/드림시니어케어
- 8.27(토) 음악도서관 초청연주, 류이치 사카모토, 음이랑
- 9.7(목) 의정부사회복지협회 초청연주, 의정부시청, 스와브앙상블
- 9.16(토) 회원음악회Ⅲ, 음악도서관, 어쩌다 마주친 가곡
- 9.16(토) 의정부예술제, 의정부예총야외무대
- 9.23(토)~10.29(일) 경기도 문화의 날, 'U브릿지 예술마당' (궁촌교, 평화의광장, 해바라기공원, 수락리버시티, 아트캠프, 곤제교)
- 10.6(금) 시민의 날 시 승격 60주년 기념 '의정부시민합창단' 축하공연
- 10.8(일) 의정부시 승격 60주년 기념 'U어린이 뮤직 페스타' 음악도서관
- 10.14(토) 의정부시 승격 60주년 기념 초청연주회, 음악도서관, 오퍼스심포니오케스트라 브라스앙상블
- 11.11(토) 제28회 의정부시합창대축제 "가을을 노래하다", 성암비전체육센터
- 11.18(토) 음악도서관, 세모앙상블
- 11.18(토) 2023 의정부 생활예술경연음악부분(색소폰). 휴서사

회원음악회

2023년 회원음악회는 의정부음악협회 회원들이 자신의 철학과 음악세계를 담은 작품을 발표하는 실험과 도전의 공연으로 의정부음악도서관과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의정부 음악도서관 1층 로비에서 5월[부부가 되었다], 7월[해설과 함께하는 cool콘서트], 9월[어쩌다 마주친 가곡] 총 3회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음악회를 준비하기 위해 임원 중 최은주 수석부지부장이하 한마루 성악이사, 김의창(핀덴 대표) 회원, 신미희 감사께서 수고해 주셨다. 올해는 연주를 위해 개인 및

단체 회원들이 함께 만나 회차마다 계절에 어울리는 주제를 선정하고 관객들과 좀 더 가까운 자리에서 소통하며 호응할 수 있는 무대였다.

또한 독특한 주제에 따라 해설이나 이야기가 있어서 관객들의 이해를 돕고, 관중들의 큰 박수와 응원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즐거웠던 연주회였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풍성한 무대를 기대한다는 후기들에 힘입어 더욱 발전하는 음악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U어린이뮤직페스타

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하여 처음 시도된 U어린이뮤직페스타에는 의정부에 거주하거나 관내 재학 중인 초등 꿈나무 음악인들이 오디션을 통해 10월 8일(일) 무대에 올랐다. 훌륭한 연주자들이 많아 오픈콘서트를 추가 진행

하였고, 본 공연은 음악도서관 뮤직홀을 꽉 채운 가슴 벅찬 시간이었다. 어린이들은 꿈을 연주하고, 함께 한 관객들은 뜨겁게 응원하는 'U어린이뮤직페스타'는 꿈꾸는 어린이 음악가들이 멋지게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U브릿지예술마당

다양한 분야의 지역 문화예술인과 생활 예술인들이 함께 펼친 공연이다. 의정부 중심부에 흐르는 하천 여러 다리 및 주변을 이어주는 산책로를 이용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일상에서 우연히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 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숨어있는 새로운 문화예술장소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전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 속 문화예술공간을 만들어 상설무대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p>10.28(토)</p> <p>Autumn Leaves</p> <p>장소: 의정부아트센터</p> <p>일시: 10월 28일(토) 14:30</p>	<p>10.29(토)</p> <p>가족 사진</p> <p>장소: 근교로</p> <p>일시: 10월 29일(토) 14:00</p>	<p>10.29(토)</p> <p>사랑 그 숲을 함께 대하여</p> <p>장소: 근교로</p> <p>일시: 10월 29일(토) 17:00</p>	<p>가을의 추억</p> <p>U-브릿지 예술마당</p> <p>가을 낭만 축제</p>
-------------------------------------------------------------------------------------	-------------------------------------------------------------------------	----------------------------------------------------------------------------------	-------------------------------------------------

<p>9.23(토)</p> <p>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p> <p>장소: 인북한 근교로</p> <p>일시: 9월 23일(토) 19:00</p>	<p>10.03(토)</p> <p>가을 동화</p> <p>장소: 양지마당</p> <p>일시: 10월 3일(토) 14:00</p>	<p>10.07(토)</p> <p>22' 생활악기경연 수상자</p> <p>장소: 근교로</p> <p>일시: 10월 7일(토) 14:30</p>	<p>10.21(토)</p> <p>사랑은 맛있다!</p> <p>장소: 수목 2층아트홀</p> <p>일시: 10월 21일(토) 14:00</p>
----------------------------------------------------------------------------------	-------------------------------------------------------------------------	---------------------------------------------------------------------------------	---------------------------------------------------------------------------------

제28회 의정부시합창대축제

11월 11일(토) 깊어가는 가을날 지금까지 28회를 이어올해도 협회 합창단들이 하나 되는 합창대축제를 개최하였다. 코로나를 지나며, 모이기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모아 음악적인 충전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는 가운데, 합창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을을 노래하다” 라는 주제로 하나 되고 화합하는 자리였다.

강은미 합창이사님을 중심으로 각 합창단 지휘자님들과 대표님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화목하고 즐거운 합창대축제가 되었다.

제28회 의정부시 합창대축제

가을을 노래하다

2023. 11. 11(토) 오후 4시 성암문화체육비전센터

수석합창단 지휘 오형영, 의정부시합창단 지휘 오형영, 의정부시합창단 지휘 김영석, 합은과이어 지휘 김선희, 제비무연스퀘어 지휘 김준용

주최:주최 의정부음악협회 후원:의정부시 의정부예술



의정부예총 이야기



2023 의정부예총 생활예술인 경연대회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
‘연세고든병원’과 업무 협약 체결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
장암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 협약 체결

의정부예총, ‘2023 의정부예술제’ 개최

2023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

2023 의정부예총 생활예술인 경연대회



의정부예총은 올해로 3회째 생활예술인 경연대회를 이
어가고 있다.

생활예술인 경연대회는 시민 생활문화예술 기반을 조
성하고, 개인·단체·동호회 등의 지역 생활문화예술인을

발굴 및 지원하며, 의정부지역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연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이 자발적
으로 활동하고 즐기는 생활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2023 의정부예총 생활예술인 경연대회 일정

공연 부문		전시 부문	
장르	무용·문인·연예·음악	장르	미술·사진
장소	예술공간 '휴서사' (의정부시 둔야로49번길 29 지하 1층)	장소	의정부시청 강당(미술) 및 시청 로비(사진)
날짜	11월 18일(토)~11월 19일(일) 18일(토) : 무용협회(오전 10시~오후 2시) 음악협회(오후 7시~오후 8시 30분) 19일(일) : 문인협회(오후 2시~오후 4시) 연예협회(오후 4시 15분~오후 7시)	날짜	11월 11일(토) : 미술협회(오전 10시~오후 2시) 11월 8일(수) 심사, 12월 중 시상 및 전시 : 사진협회
홍보 및 진행	연극협회에서 대관, 홍보, 진행, 음향, 조명 전담	홍보 및 진행	미술협회와 사진협회 자체 전담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 '연세고든병원'과 업무 협약 체결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이하 '의
정부예총'이라 한다)'와 '연세고든병원'이 8월 31일 (목)
오후 2시, 연세고든병원 6층 회의실에서 상호 이익과
공동번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예총'과 '연세고든병원'이 상호 협력
하여 각 분야의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후 '의정부예총'과 '연세고든병원'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및 활발한 교류를 지속할 예
정이다.

의정부예총 이미숙 회장은 "의정부예총과 연세고든병
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음에 감사드린다. 본 업무
협약으로 인해 지역 예술인들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
게 되고, 지역 의료인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이로써 양측의
공동 발전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연세고든병원의 최현민 병원장은 "업무 협약에 선뜻 동
의해 준 의정부예총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본 협약
을 계기로 지역 예술인 및 가족분들께 지속적으로 최상
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 장암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 협약 체결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이하 '의정
부예총'이라 한다)'와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은 2023년
3월 20일 오후 2시, 의정부예총 2층 강당에서 상호 이
익과 공동번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의정부예총과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이 상호 협
력하여 예술·문화 프로그램을 발굴 및 양질의 예술·문
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후
양 기관은 의정부예총 소속 예술인들의 강의계획서를
토대로 지역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문화콘
텐츠를 공유할 예정이다.

의정부예총 이미숙 회장은 "업무 협약에 동의해 준 장암
종합사회복지관에 감사드린다. 본 협약을 계기로 지역 예
술인과 의정부시민 간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지길 바란다.
의정부시민 전 세대가 조화롭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윤연희 관장은 "업무 협약에 감사
드린다. 본 업무 협약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
화·예술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확장될 것으로 믿는다.
되도록 많은 지역 주민이 문화·예술 혜택을 누릴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의정부예총과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은 다양한 프로그램
을 지속적으로 기획하여 의정부시민 전 세대가 조화롭
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여가 활동을 즐길 만한 기회
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의정부시민이 한데 어울려 공
연을 하거나 전시회를 여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역 예술
인과 의정부시민 사이 간극을 좁히고 통합의 장을 마련
할 계획이다.

의정부예총, '2023 의정부예술제' 개최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이하 '의정부예총')는 2023년 9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 10분까지 의정부시청 앞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에서 '2023 의정부예술제'를 개최했다.

의정부예총은 이번 축제의 장을 통해 예년과 다른 예술을 선보이기 위해 주력했다.

'배우와 성악가의 콜라보 뮤지컬 콘서트', '국악인들이 크로스오버 창법으로 부르는 낯선 방식의 노래', '초청 뮤지션들의 솔로 및 듀엣 공연', '지역 문인과 초등학생들의 콜라보 시화전', '의정부 시 승격 60주년 기념 사진전' 등이 가을밤의 정취를 한껏 돋우었다.

아울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만한 15개의 무료 체험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최대치의 문화-예술 혜택을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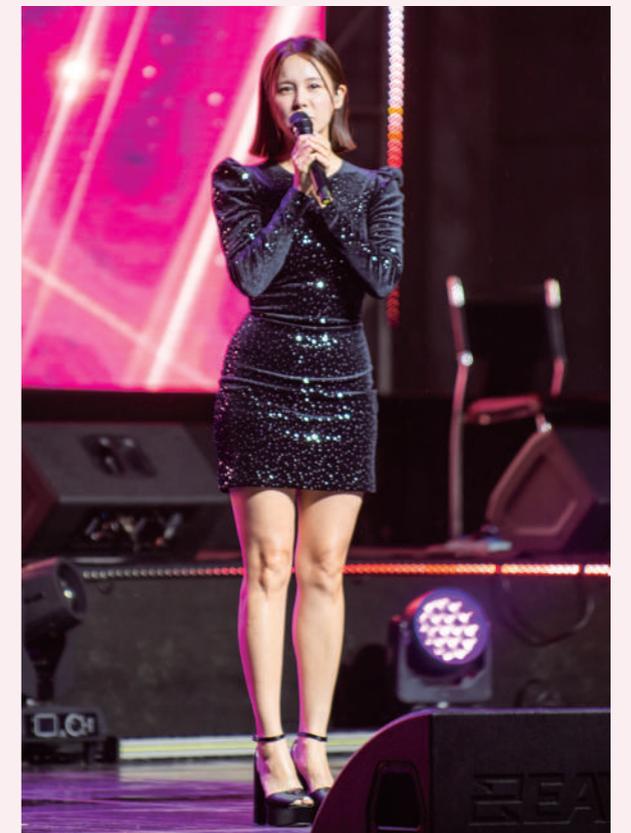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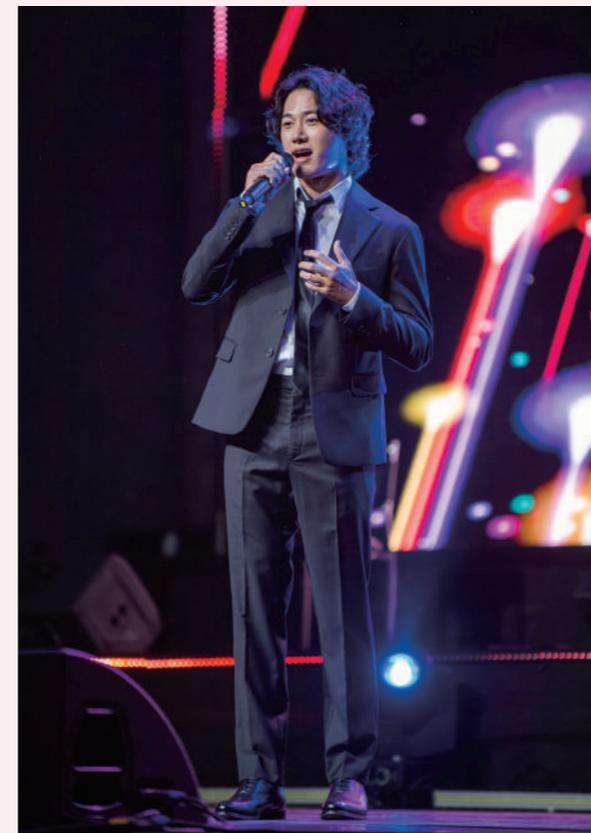
이미숙 의정부예총 회장은 “앞으로도 의정부예총은 예술 창작에 혼신을 다하여, 다양한 장르의 예술문화가 균형을 이루며 활성화되도록 끊임없이 애쓸 것”이라며 “그 결과 시민과 가까이 소통하는 예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예술, 감동과 여운을 주는 예술을 다각도로 선보일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이날 많은 시민들이 축제의 장에 나와, 무대와 객석 간 경계를 넘나들며 가을날의 정취에 물들었다.









2023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

2023년 12월 15일 오후 6시,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2023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이 시행됐다. 겨울이라는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극장 안은 온기로 가득했다. 예술가들의 열기가 극장을 가득 채웠기 때문일 것이다.

예술가는 영혼의 언어로 대중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영혼의 언어는 사람들의 무의식에 스며들어, 저마다의 가슴에 내재된 본연의 천진함을 의식 위로 끌어올려 주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삭막하고 적막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일상 속 의미를 되찾고 삶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곤 한다.

그러한 역할을 다하고자, 올 한 해 예술혼을 불사르신 여러분을 위해 예술인의 밤이라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감사한 분들께 의정부예총 가족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해드렸다. 예술가들에겐 예를 갖춰 시상함으로써 흠족한 마음으로 2023년과 작별하게 되었다.

한 해 동안 애쓰신 의정부예총 회원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식전공연 _ 가수 종희



식전공연 _ 가수 송길수



식전공연 _ 가수 신비



2023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_감사패 전달



2023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_경기예총회장상



2023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_시장상



2023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_시의회 의장상



2023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_최영희 국회의원상



2023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_최영희 국회의원상



2023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_김민철 국회의원상



2023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_오영환 국회의원상



2023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_한국예총회장상



2023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_의정부예총회장상_국악협회



2023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_의정부예총회장상_무용협회



2023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_의정부예총회장상_문인협회



2023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_의정부예총회장상_미술협회



2023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_의정부예총회장상_사진협회



2023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_의정부예총회장상_연극협회



2023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_의정부예총회장상_연예협회



2023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_의정부예총회장상_음악협회

2023 의정부예총 예술인의 밤 시상 내역

- ◆ 의정부시장상 문인협회 박정숙 연예협회 김범관
- ◆ 시의회의장상 음악협회 김영선 연극협회 이왕일
- ◆ 김민철국회의원상 무용협회 노재경 연극협회 이경민
- ◆ 오영환국회의원상 음악협회 신미희 사진협회 이용옥
- ◆ 최영희국회의원상 문인협회 유정숙 연예협회 김 용
- ◆ 한국예총회장상 국악협회 정복희 연예협회 박영길
- ◆ 경기예총회장상
 - 연예협회 이경석 연예협회 최명옥 미술협회 조인제 무용협회 지한영
 - 연극협회 최상우 국악협회 강정님
- ◆ 의정부예총회장상
 - 국악협회 김다은 국악협회 김진영 무용협회 김혜진 무용협회 방소현
 - 무용협회 서지영 무용협회 이지수 문인협회 류일화 문인협회 이지향
 - 문인협회 양호숙 미술협회 구애경 미술협회 김은미 미술협회 오선영
 - 미술협회 임미환 미술협회 조영애 사진협회 박의철 사진협회 서경자
 - 사진협회 이옥순 사진협회 정순자 사진협회 조신호 연극협회 이인규
 - 연예협회 금세영 연예협회 김기덕 연예협회 남정미 연예협회 오기덕
 - 연예협회 정 미 음악협회 김강희 음악협회 김의창 음악협회 박성권
 - 음악협회 이경미 음악협회 임혜인



전시 부문



겨울역 - 첫차

시

밤사이 철길을 하얗게 지워버린
철마도 더 달리고 싶다는
북행열차의 끄트머리

역내 가로등이 켜지고
대합실문이 열리면
첫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전방부대 면회 후 발길을 돌리지 못한
어머니와 아들이 마주 잡은 손
무릎까지 올라온 부츠가
웬지 춥게 보이는 전화국 아가씨
자칭 미녀라는 읍내 화장품가게 여사장

성애가 낀 유리창을 굽으며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눈가의 축축함을 애써 지우려 하지 않는다

백육십 원짜리 비둘기호 완행열차가
정년을 몇 달 앞둔 역장의 출발 신호에
지워진 철길을 새로 만든다.

-1984년 신탄리역의 겨울에...

김중일

서울 출생
계간 <시와 수상문학>으로 등단.
철도청 철도공사 정년퇴임.
한국문인협회 의정부문인회 회원



그리움

시

꽃잎이 떠나가고
또 다른 그림움이 오네

무수한 삶의 이야기들
아득하게 멀어져도

밀려오는 한줄기 그리움
손짓하며 나를 부르는데

어둠이 내리는 창가에
별빛처럼 쏟아지는

그리움
그리움이여

허은주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문학치유위원
한국 시낭송치유협회 회원
저서 : 사랑이 있는 풍경
공저 : 행복을 실은 자전거 외 13권
이메일 : hej1402@hanmail.net



무궁화를 만나다

수필

꽃은 천상의 선녀들이 놀다간 자리에 피어난 언어들. 꽃의 언어로 쓴 전설에는 희로애락을 노래하는 삶의 원형이 있다. 그중에서도 무궁화가 더욱 그러하다.

자주 다니는 산책길을 오늘 아침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걷고 있는데, 활짝 핀 무궁화꽃이 눈에 선뜻 들어왔다. 공설운동장 담장 길을 따라 어느새 줄지어 핀 무궁화. 작은 폭죽을 터뜨리듯 피어난 무궁화가 초여름 신록에 익숙한 길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푸릇푸릇했던 봄날의 잎이나 앙증맞은 꽃봉오리는 거들떠보지 않고 무심히 지나쳐버린 것이 못내 미안하여, 무궁화 앞으로 다가가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다른 어떤 꽃보다 무궁화가 피면 짙은 향수와 함께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는 유년시절 무궁화를 보고 자란 나에게 각인된 이 꽃의 표상 때문일 것이다.

대구 시내에 있었던 우리 집은 마당이 꽤 넓었는데 마당 한가운데에 아버지께서 꽃밭을 만드셨다.

둥근 꽃밭 가장자리는 바윗돌과 회양목으로 둘러져있었고, 가운데는 다알리아, 목단, 분꽃, 채송화, 맨드라미 등이 계절 따라 꽃을 피웠다. 무궁화는 꽃밭 한쪽에 서너 그루 심어져 있었는데, 지금처럼 여름의 더위가 시작될 즈음 꽃봉오리가 맺혔고, 이윽고 이 가지 저 가지에서 다투듯 분홍색, 흰색 무궁화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꽃을 유달리 좋아하셨던 할머니는 어린 나에게 꽃이 한 가지씩 필 때마다 꽃 이름을 알려 주셨고 꽃에 얽힌 이야기도 해 주셨다. 무궁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던 어느 날 옆에서 계시던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무궁화가 피고 백일이 되면 첫서리가 내린다.”

어렸을 때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서리라는 놈이 어디선가 숨어서 무궁화가 피는 걸 날마다 지켜보고 있나보다.’ 라고 생각했다. 그래야 백 일째 되는 날 모습을 드러낼테니 말이다. 무궁화와 서리를 이야기하시던 할머니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꽃밭을 일구신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다. 그리고 그 옛날 조그만 아이였던 나는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다.

무궁화를 볼 때마다 꽃밭을 돌보시던 아버지와 무궁화꽃송이를 찬찬히 바라보시던 할머니가 뭉스도 그리워진다. 그리고 가을 아침 첫서리가 하얗게

김문희

2002년 '문예사조' 수필 등단
교직 경력 37년
문학 계간지 '중년의 바다' 발행인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장 역임
통일인성교육원 강사, 의정부시평생학습원 강사



내린 들판을 지날 때면, 단아하게 늙으신 할머니께서, “무궁화가 핀지 백 일째 되는 날이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듯해 사방을 둘러보게 된다.

황실이나 귀족을 상징하는 서양의 국화(國花)들과는 달리 무궁화는 우리 백성의 사랑과 뜻에 따라 나라꽃이 되었다고 한다. 무궁화는 옷감에 비유하면 화려한 비단이나 윤기 나는 인견이 아닌 삼베와 같다.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백성들은 삼베옷을 입고 지냈다.

보기만 해도 정감이 가는 삼베옷처럼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또 있다면, 바로 무궁화꽃이다.

무궁화는 현란하지 않으며 어디에선가 순결한 맛이 난다. 삼베옷을 즐겨 입으셨지만 기쁨이 있으셨던 할머니 모습이 생각난다. 할머니는 무궁화처럼 사신 분이시다.

할머니는 마흔도 안된 서른 중반에 홀로 되셨다고 한다.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박연리, 낙동강 지류가 흐르는 작은 산골 동네가 할머니가 시집와 사셨던 동네이다. 아버지 위로 누님 두 분이 계셨으니 할머니 슬하에는 딸 둘과 아들 한 명이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지엄하면서도 괴팍하셨다는 홀시아버지를 모셨는데, 나의 증조부인 당신의 시아버님은 비누로 씻은 할머니 손에서 냄새가 조금만 나도, 차려간 밥상을 밀치며, “어라, 사분가루 냄새난다. 상 물러라.” 하셔서 다시 상을 차려드려야 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밤잠 줄여가며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베를 짜 번 돈으로 논밭을 늘리며 자식 셋을 키우셨다.

내가 할머니 초상화를 그린다면, 말 못할 인고의 세월을 이겨낸 삼베옷과도 같고, 무궁화같기도 한 내면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다.

새벽녘 여명 속에서 꽃망울을 터뜨린 무궁화는 오후가 되면 꽃잎을 서서히 오므리고 지는 해를 따라 툭, 하고 땅에 떨어진다. 송이째 꼭지를 떨어뜨리는 무궁화는 떨어진 뒷자리가 어지럽지 않고 깨끗하다.

할머니는 늙으셨어도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셨다.

늘 식구들 중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머리를 곱게 빗고 비녀를 지르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 72세에 돌아가신 할머니는 돌아가시던 바로 그날 아침에도 마당을 쓸고, 대청마루를 구석구석 닦고 손수 빨래를 하셨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아도 제 스스로 땅으로 다가가 생명을 내려놓는 무궁화처럼,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다 미련 없이 훌가분히 떠나신, 무궁화 같은 분이 나의 할머니다.

오늘 아침 마주친 무궁화 앞에 선 나는 문득 할머니의 음성을 듣는다.

“무궁화 피면 백 일째 되는 날, 첫서리가 내린다!” 어린 시절 무심히 듣고 흘렸던 그 말은, 무더운 여름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겨울을 당당히 맞을 수 있다는 숭고한 자연의 진리를 말하는 것 같아 가슴이 찢르르해지는 것이다.

첫서리는 겨울을 예고하는 첫 신호이다.

매일 꽃을 피우고, 떨어뜨리고, 또 피우는 무궁화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등치를 튼실하게 하며 엄동설한을 이겨낼 힘을 키운다.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길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데 있다는 것을 무궁화가 묵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무궁화가 오랜 옛날부터 민족 정서를 대표하는 꽃이 된 것은 일찍이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선조들의 현명함이 아닐까 싶다.

유년기를 지나 성장하고 나이 들수록 이 세상 살기가 녹록지 않음을 절감하며 괴로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며 지낸 세월. 그럴 때마다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나도 모르는 새에 내 피속에 스며든 무궁화의 표상 때문이 아니었을까?

오늘 피어난 무궁화는 어제의 무궁화가 아니다. 날마다 변화된 새로운 내가 되기를 갈망하면서도 진작 그런 무궁화를 인생의 좌표로 삼지 않은 것이 부끄럽다. 주어진 삶을 더 열심히 살도록 나를 일깨워 주는 꽃 무궁화!

내 유년의 추억 한 권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꽃이, 우리 겨레의 꽃이라는 것이 못내 자랑스럽다.

숨결

수필

엄마가 메주를 내다 버렸다. “메주가 다 썩고 이게 뭔일이다냐?” 내 평생 처음 있는 일이라며 혼잣말처럼 쏟아내는 엄마 말을 가만 듣고 있었다. 칠십이 넘었어도 엄마가 처음 겪는 일들이 앞으로도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흔들린다. 이런 게 시골에는 없다며 맛있게 드시던 모습도 스치면서 이후의 첫 경험들이 엄마에게 생생하게 기억되길 바란다.

나이 들면 키와 몸무게도 줄어들고 위축된다. 무엇보다도 두뇌가 쪼그라드는 일로 한 걱정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등록했다. 치매 강의를 첫 시간에 듣는데 다양한 사례가 공포감을 불러들인다. 밥을 먹으면서도 ‘밥줘!’라고 계속 말한다는 말에 불안감 또한 짊어진다. 친정엄마가 오래 사는 게 재앙이 아닌 축복이길 바란다고 기도하니 간절함의 깊이도 남다르다. 앞으로 누군가의 보호를 받거나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입장으로 둘 중 하나일 거라는데 반론의 여지가 없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능력에 빨간불이 켜지면 잊고 잊혀지는 게 다반사일 것이다. 노인 인구 증가로 집집마다 있다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다. 개강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모두 자기만의 간절한 서사가 불거져 나왔다. 대부분 부모님을 돌봐주려는 마음이 많았고 부부기간에도 필요하다는 게 드러났다. 요양병원에 보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아내를 지켜주기 위해 왔다는 남편도 있다.

아버지의 첫 기일이 다가온다. 추석 무렵에 만났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기일 무렵에 내려가겠다고 하는 자식은 따로 있고 이번에도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다. 아버지 눈치 보가며 엄마가 힘들지 않도록 그만큼 하고 살았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큰동생의 한결같은 모습이다. 큰동생은 매사 잘 참았는데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에 유독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외모는 아버지를 빼 박았는데 죽을 힘을 다해 아버지처럼 살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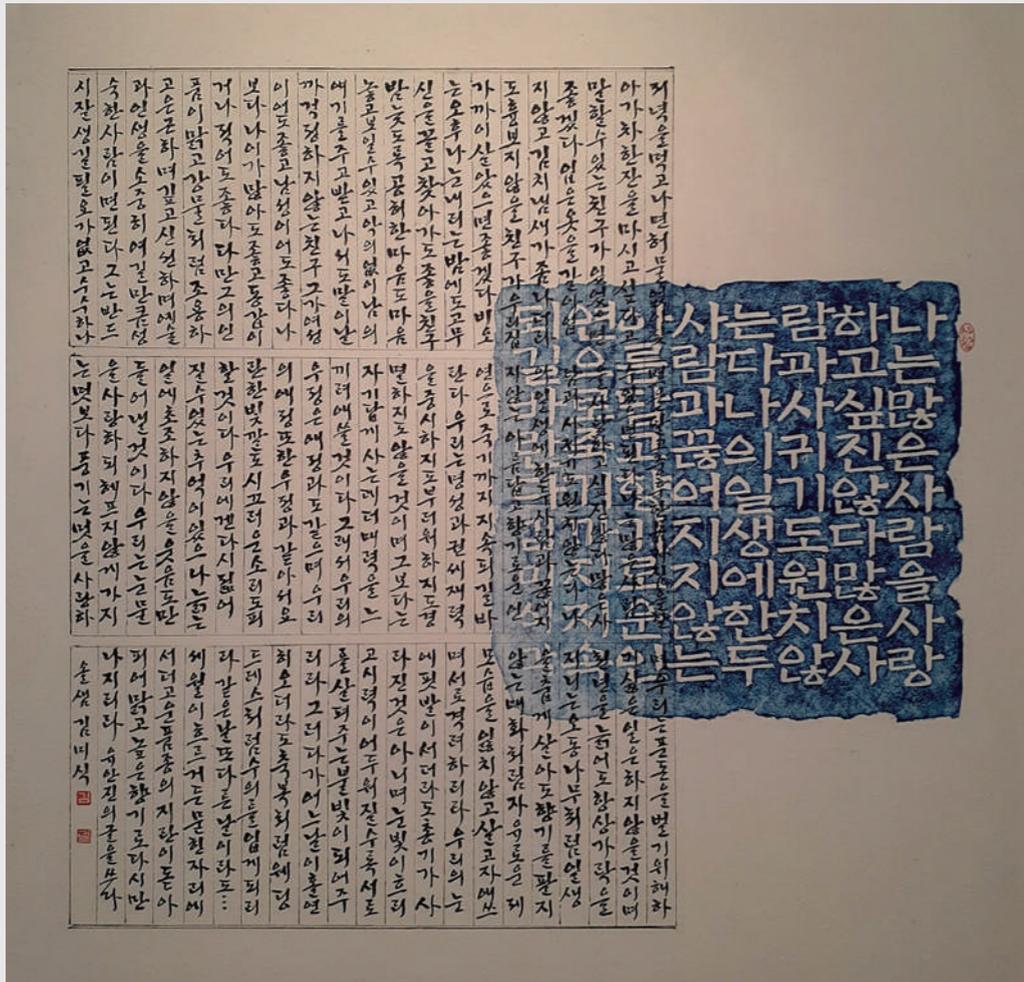
겠다고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저어갔다. 아버지의 숨결이 멈추자 또 다른 의미의 숨구멍이 트였다. 아버지 주검이 타들어 가는 화장터에서 우린 그런 상처들을 헤집었다. 아버지와 관련된 아픔이나 상처를 아버지의 주검과 함께 태워버린 채 훌가분해지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이 매장이었다는 걸 모두가 알면서도 아무도 꺼내지 않았다. 마을 회관이나 교회에 나간 엄마가 메주 썩은 이야기를 꺼냈다. 그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숨결과 연관될 줄이야. 사람이 죽어 나가면 그해 메주가 썩는다는 거였다. 믿거나 말거나 흘려 넘겨지지 않고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는 평생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고 병원 가는 것도 거부하면서 칩거하듯 살다 가셨다. 스스로 고립된 삶을 자처하며 일관했다. 어느 집이나 걸은 멀쩡해도 속이 썩은 메주를 꺼안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때론 세심한 손길로 느껴지고 만질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있다. 믿고 신뢰하는 대상에게 파고들면서 말기는 순간이 때때로 찾아온다. 생명의 기운을 통해 생명력이 살아 숨 쉰다는 걸 인지하듯 죽음의 기운 또한 인식하도록 한다. 죽고 싶다면 아버지는 결국 살고 싶어 했던 흔적들을 여기저기에 남겨뒀다. 시간 맞춰서 꼬박꼬박 약을 복용하려고 벽시계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뜬금없이 엄마에게 손목시계를 사 달라 했다. 텔레비전 채널권을 갖고 살면서 유독 건강 프로그램에 나온 건강 수칙들을 받아쓰기했다. 돌아가시기 3일 전에는 병원에 한 번 가보길 원해서 그리했던 게 잘한 일이라고 엄마가 몇 번씩 되뇌었다. 아버지 몸 안에는 장 천공을 비롯해 여러 가지 병명이 숨겨져 있었다. 어쩌면 아버지의 뇌도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런 의심이 치매 강의를 듣다 보니 생겨났다. 치매 없이 멀쩡한 상태에서 엄마를 상대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냐는 때늦은 의문과 함께 위축됐을 것만 같은 아버지의 뇌가 그려졌다. 메주를 품은 항아리가 살아 숨 쉬는 것처럼 아버지에게도 그런 항아리가 따로 있었다. 끈으로 묶인 여러 종류의 지폐 다발이 빨강 고추장 통에서 나왔다. 돈을 세서 모으는 재미로 살았고 돈을 쓰는 재미는 결국 누리지 못한 채 가셨다. 스스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으니 처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사랑과 돈을 흘려보내기보다는 오히려 사랑과 돈을 받기만 원했다. 명절에 용돈을 드리면 전기세가 아깝다며 불도 켜지 않은 작은 방에서 어설프게 돈다발을 세기 바빴다. 아버지 숨결은 또 다른 숨결을 불러들였다.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낳고 다른 세계와 세상을 연결하듯 죽음 또한 또 다른 기운을 불러 모은다. 아버지 입관할 때 장례지도사가 하라는 대로 우리는 움직였다. 수의에 싸인 주검엔 온기가 없다. 살아 있었을 때에도 안아주거나 안아보지 못했던 몸이다. 마지막으로 어느 한 곳에 손을 올린 채 만져보라는데 주저했다. 깨끗하게 소독했으니 만져도 된다는 장례지도사의 말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어쩌다 보니 내 앞에 아버지 발이 놓여 있다. 울퉁불퉁한 살아생전의 그 발이다. 잘 걸지 못하는 걸음걸이와 함께 아버지가 살아온 길이 지워진다. 이제 새로운 몸과 발로 낯선 길을 떠날 때다.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지는 아버지의 굵은 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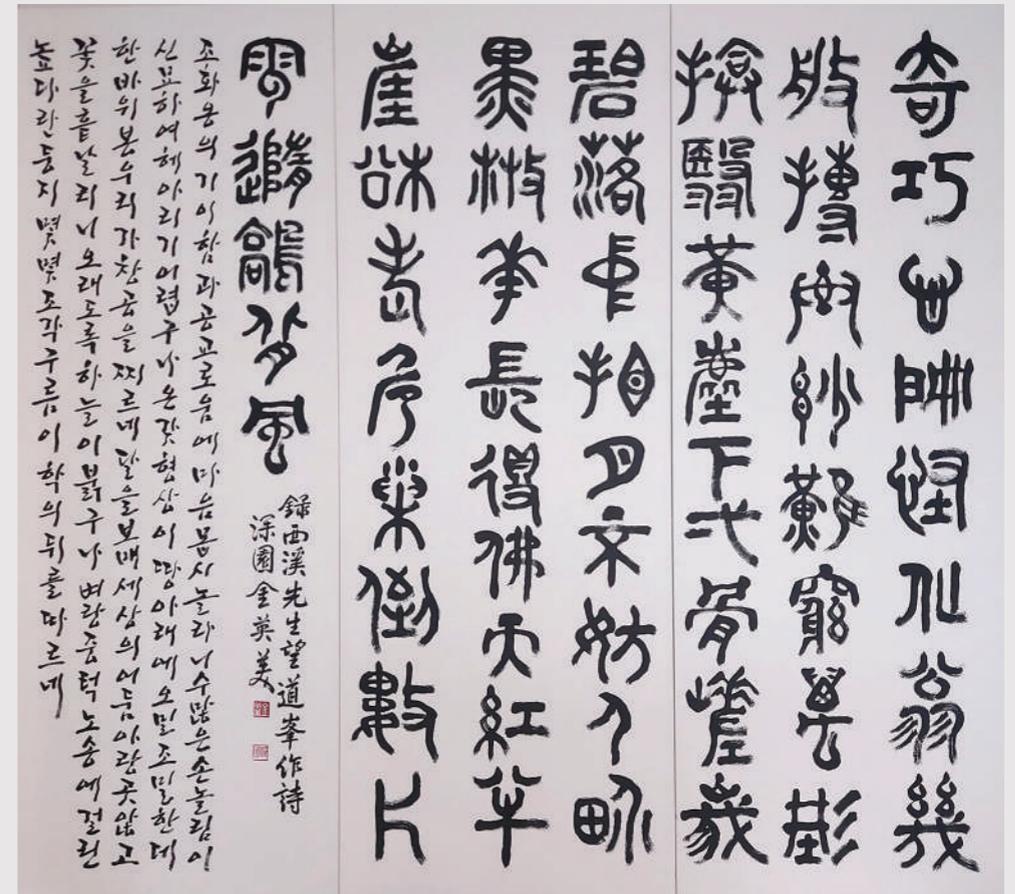
양호숙

전남 구례 출생
2010년 계간 '시에'로 수필 등단
수필집 『뽕족구두를 벗은 초록여우』
사)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14대 지부장 역임
현)생연중학교 사서





유안진님의 지란지교를 꿈꾸며 (서예, 75cmX75cm, 먹+아크릴물감+손지)



서계 선생시 (서예 50cm×135cm×3, 먹, 화선지)

김미식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경기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예, 문인화 교육자 과정 수료
 전국회룡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미술협회, 한국서예가협회, 갈물회, 목향회 회원
 現 의정부문화센터 한글, 한문서예 강사
 現 의정부미술협회 서예분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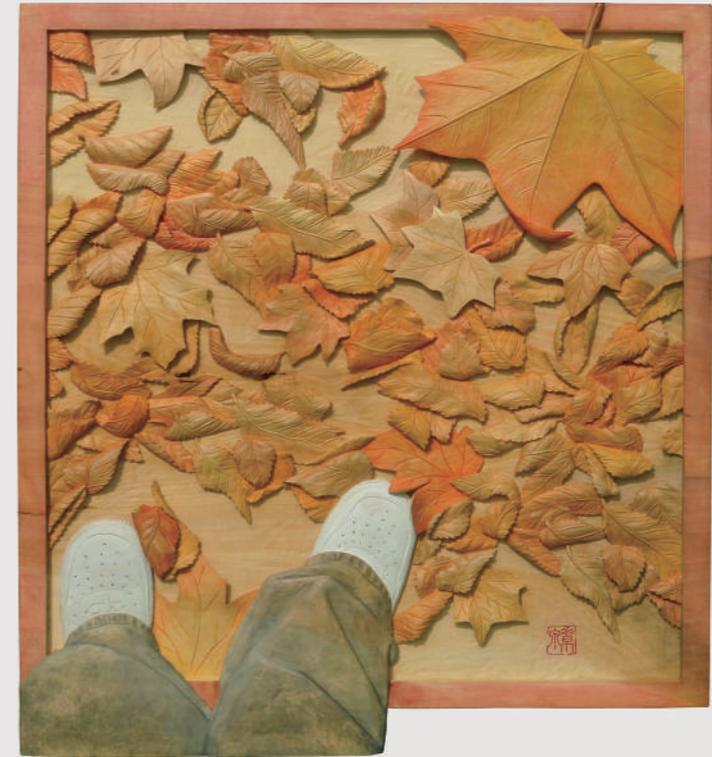
김영미(심원)

한국서가협 초대작가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심사위원 역임
 세종한글 서예대전 문인화 부문 초대작가
 추억 그리고 일상 서화전 개인전시
 (현)한국서가협, 한국미술협회 회원 및 의정부지부 부지부장
 (현)경기도 서예가연합회 회원





시간의 하모니(마जू보기) (조각 25cmx36cmx75cm
이태리 대리석 등 세계각국 석재(스톤상감))



액자 속으로 (목공예, 50x55, 행자목)

박한흥

2020 의정부 문화재단 올해의 작가 기획 초대 개인전
2021 전국회룡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양주조각가 협회 창립협회전
목포대학 심의여정전
현대미술초대전
한·중 예술 교류전
한·프랑스 민간 교류전
개인전 7회

전국회룡미술 초대작가
세움조각회 회원
의정부미술협회 조각분과장
동두천 세아갤러리 회원



이동술

소천목공예 회원전 5회
전통목조각 올림전(교육 30년 기념 동문전)
목공예작가 초대전(일산 키텍스)
목공예작가 초대전(송도 컨벤시아)
경기북부작가 어울림전(의정부예술의전당)
20인의 어울림전(의정부문화재단)
의·양·동 예술로 통하다, 100인전(의정부문화재단)
물꼬를 트다(갤러리평화)
지도자 공예사범 임원초대전(라메르갤러리)
경기향토작가초대전(성남아트센터 808갤러리)

60인초대전, 의정부시 시승격60주년 기념전
(의정부 문화재단)
한국미술협회 전통공예분과 이사
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 부지부장
한국예술문화협회 부회장
한국조각가협회 이사
한양공예예술협회 이사
소천전통목공예 연구소 소장
이동술명인 전승아카데미 원장
관인소천목공예전문학원 원장





회룡난장



겨울소경

오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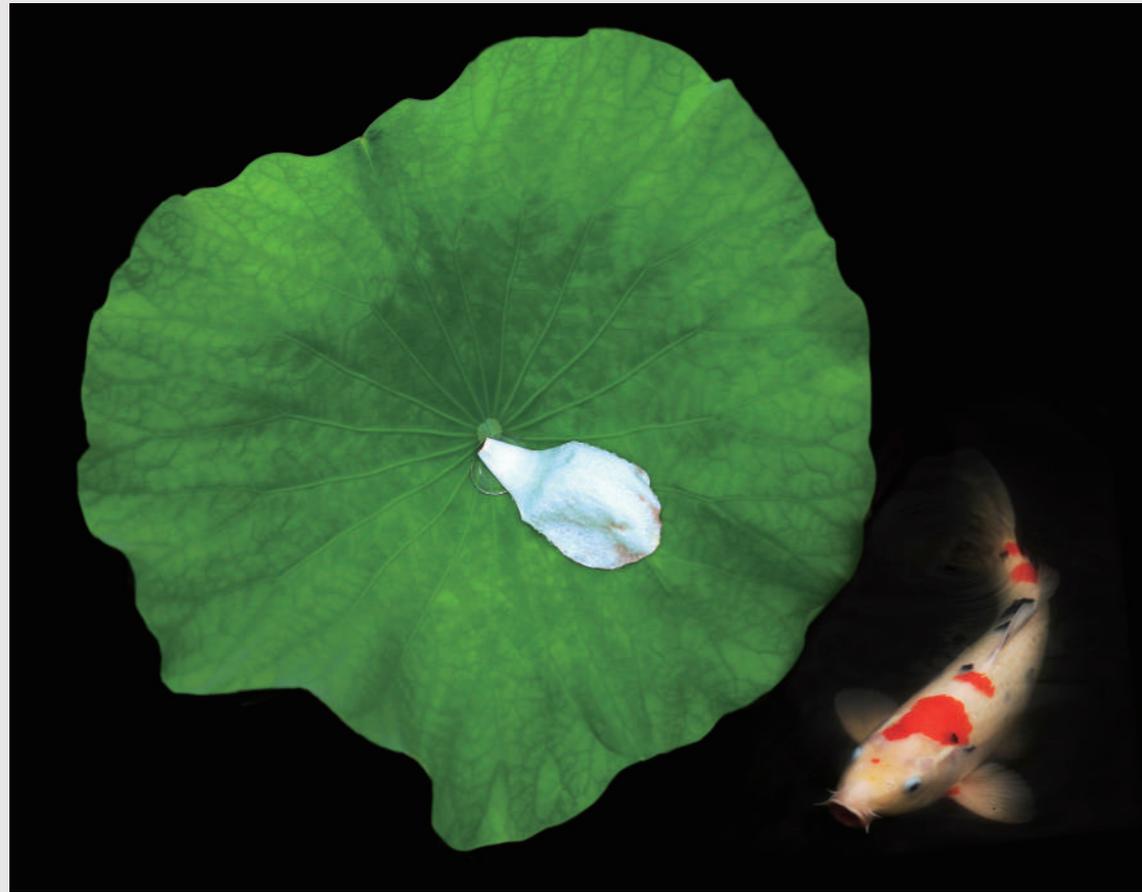
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지부장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전국촬영대회, 공모전 은상 및 가작 외 입선 다수
 2015년 부부사진전 개최 - 의정부예술의전당
 2021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장 공로상
 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문화간사 역임



정순자

경기도 사진대전 2회 입선
 회룡전국사진공모전 동상
 안동전국사진공모전 가작 외 다수 수상
 현) 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감사





하모니



석양

김영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부지부장
 경기도사진대전 초대작가
 전국회룡미술대전 초대작가
 한석봉서예미술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환경영상인연합회 추천작가
 대한민국향토문화미술대전 추천작가
 제11회 한국문화예술대전 최우수작가상
 2022아트서울매거진 최우수작가상
 제11회 한국창작문화예술대전 올해의작가상
 2022대한민국한석봉서예 미술대전 금상
 제1회 월드컵 전국사진공모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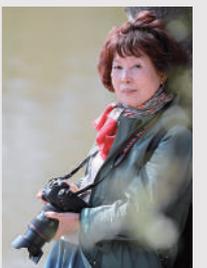
제22회 신형상전국사진공모전 금상
 제31회 양산전국사진공모전 금상



서경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부지부장
 의정부사진클럽 회장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 고문
 개인전 자연 - 내 영혼을 담다
 사진집 -자화상 출판
 제7회 의정부시사진공모전 최우수
 경기도 사진대전 5회 입선
 정수사진대전 입선
 연천전국사진공모전 은상, 동상
 가평관광사진공모전 동상

의정부미술협회 서양화 준회원
 제11회 대한민국나라사랑미술대전 입상
 제21회 대한민국아카데미미술대전 입상2회
 가을스케치 회원전 - 갤러리 미래



의정부예술

Uijeongbu Arts & Culture 2023

발행처 (사)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발행인 이미숙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80번길 18
연락처 t. 031 837 9000 / f. 031 837 9011
이메일 yechong477@hanmail.net
홈페이지 <http://yechong.co.kr>
편집위원 유정숙
기 획 의정부예총 사무국
출 판 동심원(t.031 852 9333)

※ 이 책은 의정부시에서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의정부예총에 있습니다.

의정부예총의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